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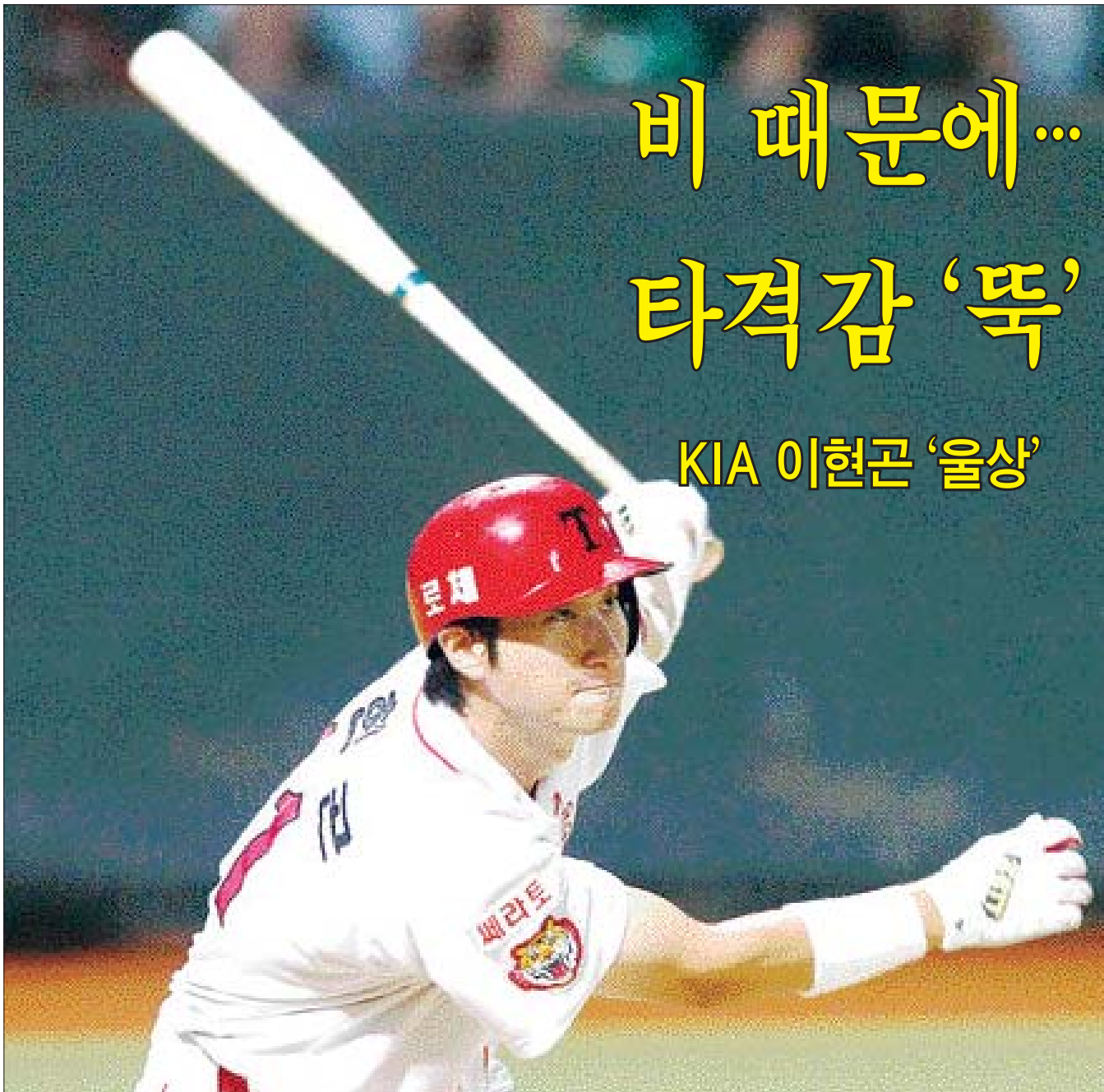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비 때문에... 타격감 '뚝'

KIA 이현곤 '울상'

“비가 알뜰네.”

올 시즌 타격·안타왕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이현곤(KIA)이 잦은 비 때문에 울상이다.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실전 경기감각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현곤은 19일 현재 타율 0.334와 안타 140개로 두 부문 단독 1위에 올라있다.

타율 부문에선 롯데 이대호(0.332)와 두산 김동주(0.329)가 추격중이고, 안타는 두산 이종욱이 136개로 4개까지 따라붙은 상황이다.

8월말까지만 해도 타율·안타부분에서 독주했던 이현곤은 최근 5경기에서 21타수 6안타, 타율 0.286의 부진한 성적으로 선두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현곤은 타격자세 등에서 아직도 최고 수준이지만, 우천취소 등으로 실전에

취소 경기 많아 컨디션 저조

최근 5경기 타율 0.286 그쳐

타율·안타 선두 위협 받아

서 공을 때리는 기회를 자주 놓치다 보니 경기감각이 엉망이 된 것이다.

최근 5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스윙은 종전과 다름없이 빠르고 힘이 넘치지만, 투수와의 승부때 정확한 타점을 찾지 못해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현곤은 실제로 우천 취소로 4일을 쉬고 출전한 지난 18일 광주 삼성전에서 4타수 무안타(1삼진)로 부진했다.

두 게임이 비로 연속 취소된 뒤 열린 지난 4일 두산전에서도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지난 7일 한화전에서 4타수 3안

타로 타격감을 회복한 듯 했으나, 또 다시 8~10일까지 4일동안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11일 한화전에선 4타수 1안타에 그쳤다.

반면 평소 일정대로 치러진 13일 LG전에선 5타수 2안타, 1득점, 2타점으로 괜찮은 타격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일정이 더 큰 문제다. KIA는 3일간 휴식 뒤 22일 수원에선 현대와 한화전 경기일정이 잡혀있다. 이후에는 23일 광주 한화전 뒤 하루 쉬고 25~10월 1일 7연전이 예정돼 있다.

일정한 흐름이 없는 일정 탓에 경기 감각을 잃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안을 수도 있다. 타격 부문 타이틀 2관왕을 노리는 이현곤이 험난한 남은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 지켜보는 팬들의 가슴도 답답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윤석민



한화 류현진



LG 박명환

토종 에이스들 “안 풀리네”

시즌 막판 부진... 잇단 패전 명예

프로야구 페넨트레이스가 종착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민(KIA) 등 각 팀의 토종 에이스들이 부진과 불운에 좌절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들이 제1선발인 1~3위 SK(케니 레이번)와 두산(다니엘 리오스), 삼성(제이미 브라운)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최근 약속이나 한 듯 간판 선발 투수들이 흔들리고 있다.

KIA 에이스 윤석민은 지난 18일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3실점하고 조기 강판당한 뒤 팀이 2-4로 제 패전 투수가 됐다. 벌써 18패(7승)째다.

시즌 최다이자 역대 공동 5위 기록, 1985년 시즌 25패를 당해 부문 최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된 장명부(삼미)가 시즌 20패까지 1, 2위 기록을 가지고 있고, 김재현(삼미), 노상수(롯데)가 각 19패,

장명부, 김영수(롯데)가 각각 18패를 당한 적이 있다.

피 말리는 2위 정탈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4위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도 막판 고전중인 대표적인 케이스.

신인이던 지난해 투수 트리플 크라운(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위업을 달성했던 ‘괴물’ 류현진은 올해에도 탈삼진왕 2연패(현재 169개)를 예약하며 시즌 15승을 수확하고 두 시즌 연속 200이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류현진은 지난 18일 현대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을 4안타 2볼넷 4실점으로 무너진 뒤 4회 최영필로 교체됐고 팀이 결국 1-8로 지면서 패전 명예를 썼다. 시즌 7패(15승)째.

3이닝 4실점 강판은 류현진이 프로 데뷔 후 최소이닝 투구다. 종전에 선발로

가장 적게 던진 건 지난해 5월 11일 현대전에서 기록했던 4.1이닝(7실점)이었다.

특히 앞선 27경기 선발 출장에서 모두 5회 이상을 책임지며 완봉승 한 번을 포함해 5차례 완투승을 낚았기에 치열한 2위 다툼 중에 나온 류현진의 부진은 아쉬움이 크다.

이와함께 박명환(LG)은 후배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펼쳤던 12일 한화전 때 1회 한 타자만 상대하고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에서 내려가 시즌 5패(10승)째의 제물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4강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의 손민환(12승)과 현대의 김수경(11승)이 부진하고 있다.

리오스(19승)와 레이번(16승), 브라운(12승) 등 외국인 에이스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마운드에서 토종 간판 투수들이 남은 시즌 위력적인 피칭을 다시 보여줄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지에 ‘첫날 부진’ 징크스

KLPGA 선수권 1언더... 선두와 4타차 공동 23위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무적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신지에(19·하이마트)가 ‘1라운드 부진 징크스’가 도지면서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신지에의 19일 경기도 이천 자유골프장(파72·6천414야드)에서 열린 신세계배 제29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와 71타를 쳤다.

5언더와 67타를 때려 공동 선두에 나선 이지애(23)와 김보미(25·이동수F&G)에 4타 뒤진 공동23위에 그친 신지에의 시즌 일곱 번째 우승컵을 차지하려면 남은 이틀 동안 힘겨운 추격전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올해 11개 대회에 출전해 6승이 거둔 신지에의 시즌 초반에는 1라운드 성적이 유난히 좋지 않아 ‘첫날 부진 징크스’에 시달려왔다.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는 첫날 78타를 쳐 공동65위까지 밀렸고 엠씨스퀘어컵 1라운드 스코어는 76타, 그리고 한국여자오픈 때는 76타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즌 평균 타수가 69.56타로 1위에 올라있는 신지에답지 않은 1라운드 부진이다. 이날도 2,3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저어냈던 신지에의 버디를 3개밖에 잡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신지에의 첫날 오버파 스코어를 낸 세차례 대회에서 준우승 한번, 우승 한번을 일궈내는 등 뒷심이 강하다. 특히 최종라운드 평균 스코어는 67.45타에 불과해 신지에가 첫날 부진해도 선수들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신지에, 그리고 3승의 안선주(20·하이마트), 2승을 올린 지은희(21·캘러웨이) 등 ‘트로이카’에 밀려 들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박희영(20·이수건설)과 최나연(21·SK텔레콤)은 나란히 4언더파 68타를 때려 모처럼 우승 기회를 잡았다.

최나연은 11번홀까지 보기없이 4개의 버디를 잡아내 단독 선두까지 기대했지만 남은 7개홀에서 맞은 5차례 이상 맞은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희영은 전반에는 2타를 잃었지만 12번홀부터 18번홀까지 버디 6개를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신지에 따라잡기에 나선 안선주와 지은희는 나란히 2언더파 70타로 공동13위에 올라 선두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회 때마다 속소를 함께 쓰는 등 단짝처럼 지내는 이지애와 김보미는 약속이나 한 듯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공동 선두에 올라 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됐다.

이지애와 김보미는 올해 한번도 ‘톱10’ 입성이 없는 무명 선수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짐 퓨릭



김경태

한국프로골프에 혜성처럼 등장한 ‘슈퍼퓨키’ 김경태(21·신한은행)가 최경주(37·나이키골프), 그리고 짐 퓨릭(미국)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 스킨스게임을 벌인다.

신한카드의 오는 10월 15일 경기도 용인 레이카사이드골프장 남코스에서 최경

짐 퓨릭 초청 스킨스 게임

내달 15일 용인에서 개최

상금 전액 불우이웃 성금

주, 퓨릭, 김경태, 그리고 허석호(34) 등 4명이 출전한 가운데 ‘신한카드 인비테이션 스킨스 게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경주는 올해 PGA 투어에서 두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랭킹 5위, 그리고 세계랭킹 10위에 올라 있고 이번 시즌 PGA투어에서 한차례 우승을 거둔 퓨릭은 세계 최정상급 3위를 달리고 있다.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6승이나 올린 허석호는 지난 2002년 신한동해오픈을 제패한 인연으로 스킨스게임에 초청을



최경주



허석호

받았다.

총상금 1억5천만원이 걸려 있지만 4명의 선수들은 상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오전 8시30분 티오프할 예정이며 KBS 2TV가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따낸 대주건설 장애인 체육단 환영식이 19일 광주 하딩크호텔에서 이승구 대주건설 사장 및 임원·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주건설 장애인체육단 ‘금의환향’

장애인체전 금·동 1개 맹활약

대주건설 장애인 체육단이 지난 10~14일 경기 김천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따내 광주가 종합7위에 오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남자 탁구 척수장애부 부문 단식과 복식 2관왕 김영진(24)씨와 김정길(21)씨는 남자 탁구 단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김준영(47)씨는 단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철수(39)·최종대(35)씨도 배구 단체 부문 금메달을 따냈으며 지난해 도하

아시아게임 남자 역도 동메달리스트 최근진씨는 남자 역도 52kg급에서 3관왕을 들어올리며 금빛 잔치를 벌였다.

대주건설 장애인체육단은 지난 6월 22일 탁구12명, 배구2명, 역도3명, 사격 1명 등 총 18명으로 창단식을 갖고 광주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대주건설은 사무직 근로자가 적은 건설업의 특성상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지만, ‘장애인 선수단 운영’을 통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메디슨스퀘어 가든 복싱 링

82년만에 철거...명예의 전당에

‘복싱의 메카’ 미국 뉴욕의 메디슨스퀘어 가든 상설 링이 82년 만에 교체된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메디슨스퀘어가든은 1925년 12월부터 사용된 상설 링을 조만간 철거해 복싱 명예의 전당에 기증한다.

이 링은 1971년 3월 8일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에게 진 경기를 비롯해 1951년 10월 로키 마르시아노가 나이 든 조 루이스를 8회 KO로 쓰러트린 경기나 조지 포먼의 1969년 6월 프로 데뷔전, 1972년 로베르토 듀란이 첫 세계 타이틀을 거머쥘 무대로도 유명하다.

20일 ‘링 고별 파티’에는 조 프레이저를 비롯해 20명 남짓의 명예의 전당 현역자, 역대 챔피언, 복싱 고위 관계자가 참가한다.

조엘 피셔 메디슨스퀘어가든 수석 부회장은 “(복싱 철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이 링은 낡은 데다 요즘 복서들은 더 큰 링을 바라고 있다”고 철거 배경을 설명했다.

전세계 복싱 링의 모델이 되어온 메디슨스퀘어가든 링은 현재 가로, 세로 각각 5.64m씩 32m지만 10월 6일 올렉 마스카에프(38·러시아)의 세계복싱평의회(WBC)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부터 가로, 세로 각각 6m씩 36m 넓이의 새 링으로 바뀐다.

900kg 이상 무게가 나가는 기존 링 구조물은 통째로 명예의 전당으로 옮겨지지만 낡고 쇠 빨간색 새 링에서도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